칼 럼

친절한 목포시민 정신

정 기 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필자는 광주에서 살지만, 학창 시절을 목포에서 보냈으며 목포는 정다운 추억의 고향이다. 신안군청과 목포시청을 방문하려고 대중교통인 기차와 버스를 이용했다. 기차에서 내려 신안군청을 찾는데 한 시민이 신안군 군내버스 승강장으로 안내해 주었으며 130번 군내버스에 승차하니 기사는 친절히 안내해 주었으며, 가실 때는 어디에서 내려 환승해 목포시청에 가시라고 했다. 신안군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환승한 1번 버스에서 한 학생이 자리를 양보하며 "할아버지 앉으십시오" "학생이 앉지 그래"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니까요"라고 했다. 얼마나 친절하고 정다운 말인가! 할아버지가 옆에 서 있어도 못 본채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학생들과는 대조적이었다.

목포시청에 도착하여 시장실을 찾는데 한 직원이 나와서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출장 중이라 비서실장님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 시장실에 가서 비서실장과 상담 할 수 있었으며 소통과 열린 행정을 하는 목포시청의 친절함을 엿볼 수 있었다. 시장실 접근을 못 하게 하는 광주시청과는 대조적이었다. 지금은 코로나가 극심했던 시대는 아니다. 아직도 코로나 예방을 위한 잠금 시설을 풀지 못하고 있는 관서가 있다면 새롭게 변해야 한다.

전남도청을 방문 했는데 안내원이 친절히 안내하여 대변인실의 대변인과 상담할 수 있었다. 도지사님은 외국 출장 중이라 했다. 전남 도청은 도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으며 국기 게양대 정비가 잘 되어 있었다. 도청기 태극기 새마을기가 게양되어 있으며 별도로 22개 군청을 상징하는 군청기 게양대가 잘 정비되어 있었다. 청룡의 해인 올해는 운이 서쪽에 있으므로 군 공항의 이전 사업이 잘 추진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을 방문했는데 안내원이 교육감실을 안내하여 출장 중인 교육감님은 못 뵙고 비서실장과 상담 할 수 있었다. 닫힌 행정을 하는 광주시교육감실과는 비교적이었다. 교육은 가정교육에서 출발해 학교 교육으로 이어졌으며, 가정교육은 인성 교육인 효와 경제교육인 직업교육인데 전남교육청은 국기 게양대에 경제를 상징하는 기가 게양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전남도의 각 학교의 국기 게양대에도 경제를 상징하는 기를 게양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만남에는 직접 만남과 간접 만남이 있는데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은 못 만나도 비서에게 소통의 뜻을 전하면 간접 만남이 된다. 그런데 닫힌 행정을 하는 단체장은 간접 만남도 어렵게 한다.

전남도 교육청에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승강장을 찾는데 마침 등산 갔다 오는 시민을 만나 물으니 "따라오십시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라고 하며 버스 승강장까지 안내해 주었다. 얼마나 친절하고 고마운 시민인가! 목포역으로 가는 빨간 안내판 1번 버스를 탔는데 차 안에서 옆에 앉은 시민이 목포역으로 간다니까 "연동 파출소 앞에서 하차해 노란색 1번 버스로 환승하십시오"라고 했다. 배려하고 안내하는 목포 시민정신의 따뜻함에 감격했다.

노란색 1번 버스로 환승 해 목포역 승강장에 하차하니 비가 오고 있었다.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아 비를 맞으며 목포역으로 가는데 우산을 쓴 여자 시민이 곁에 와서 "역으로 가십니까? 제가 모셔 드릴게요." 하며 우산을 같이 쓰며 목포역으로 갔다. "할아버지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필자의 눈에는 나도 모르게 감사의 눈물이 나왔다.

목포역에서 새마을 열차를 타고 목포역을 떠나면서 열차 안에서 옆에 동승한 승객에게 목포시는 환경이 관광도시로 바뀌었고 목포시민의 친절함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시간은 변화의 원동력이다. 필자가 목포시를 떠난 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항구도시 목포시는 아름답게 변했고 그 안에서 사는 목포시민은 자랑스러운 친절한 시민으로 바뀐 것을 실감했다. 학창 시절의 목포시! 관광도시로 변모한 목포시! 어머니 품 안 같이 따뜻하게 안아주는 목포 시민정신에 감사한다.

기 고

자녀납치 사기전화, 일명 '사이버 납치' 침착한 대응 필요

이 재 훈 장흥경찰서 경무계

최근 미국에서 실종됐던 중국 유학생이 3일만에 시내에서 약 40km 떨어진 산속 임시 캠프장에서 발견된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는데이 사건은 돈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신종'사이버 납치'에 당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싱사기는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종 사이버 납치는 물론 자녀를 납치했다는 사기전화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이를 대비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 연일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전화사기에 속아 피해를 입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사기범들은 자녀의 목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피해자는 자녀가 진짜로 납치된 것은 아닌지 당황하게 된다. 또한 휴대전화가 꺼져 있거나 담임선생님과 통화가 되지 않으면 그 순간 이성적 판단보다는 경황이 없는 나머지 자녀가 납치된 줄 알고 범인의 요구에 응하여 돈을 입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전화를 받게 되면 당황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전화사기를 충분히 의심하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

또한,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서는 안되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상담과 도움을 받아 자녀가 학교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평소에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비상 연락을 위해 자녀 친구나 교사, 교무실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놓은 지혜로움이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기 고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행동요령이 중요합니다

김 민 호 곡성119안전센터장

추워지는 겨울철, 아파트 화재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면서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 정확한 피난 행동을 취해야 하지만 제대로 대피를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다. 그렇기에 전국민이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행동요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대비해야한다.

먼저,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으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현관 입구 등에서 화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른 곳(아파트 다른 세대, 복도, 계단실, 주차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기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는 것이 좋지만, 자기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라면 자기 집에서 발생한 경우와 같이 각각 행동해야 한다.

실내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실내에 대기하면서 창문 등 연기 유입 통로를 막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는 편이 더 안전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다른 층으로 연소 확대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피하는 도중에 연기 질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급박한 상황에서의 잘못된 판단은 때때로 목숨을 잃게 하기도 한다. 정확한 피난행동요령을 익혀 아파트 화재시 긴급상황에 잘 대처해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김 순 열 편집국장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